

원불교 대각개교절 경축기념식 축전

대각개교절을 맞아 경축의 마음을 드리며, 종법사님의 정진력과 지혜의 덕화로 모든 교도 여러분들이 수행의 진전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에 이르는 것은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데 있어서도 지위고하를 나누지 않는 것 또한 모두의 바람이자 정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혜안으로 이러한 뜻을 실천하신이래, 원불교는 본연의 목적에 소홀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귀감을 쌓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모든 성자들의 마음이며, 모든 중생의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서로와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말하는 일원의 진리는 이 사회를 화합과 상생으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질을 우선하는 물신주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사회의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과 인류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도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동시에 그 가르침을 널리 펼쳐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웃 종교간에도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경축을 계기로 종법사님의 지도 아래 한결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교단,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교단으로 나아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대각개교절을 축하드리며,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4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자승